

Nr. 557 (2025 - 05- 06)

0-12-1



Licht und Salz

어머니

편집부

생명이 움트는 계절, 5월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이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듯, 이 달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인 '어머니'를 기억하게 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던 그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신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루카 2,51) 성경의 이 짧은 구절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조용한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지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작은 정성과 기도가 모여 세상을 밝히듯,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금 빛과 소금이 되어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 27-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3월 16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미사 1



3월 16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미사 2

어머니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실장님과 함께 / 박경하 세실리아 실장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세레 소감 / 서현덕 발렌티노, 임호민 마리스텔라,
최민정 마리, 허승정 루카



2025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초심 (Neues Herz)

3,4월 십자가 (Das Kreuz)

5,6월 어머니 (Mutter)

7,8월 순례 (Wahlfahrt)

9,10월 일치 (Einheit)

11,12월 탄생 (Geburt)



4월 26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엘레나 유아세례식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이웃 사랑

박경하 세실리아 실장님 (Gemeindehelferin)

5월은 성모성월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5월은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성모의 신심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성모성월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날씨가 변화무쌍한 4월이 지나고 나면 5월은 봄의 절정이며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시기입니다.

유래를 살펴보면 성모성월을 가장 먼저 지낸 곳은 동방교회입니다. 11세기부터 이집트 콥틱교회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찬미하기 위해 12월 10일부터 이듬해 1월 8일까지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단식을 하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13세기 들어서 스페인 카스티야의 왕인 알폰소 10세가 직접 지은 시와 노래를 5월 축제일에 성모께 봉헌하면서부터 성모성월이 5월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성모성월이 5월로 구체화된 것은 17세기말 이탈리아 피렌체 인근에 있는 도미니코회 수련자들이 5월 한달 동안 성모 호칭 기도를 바치면서부터이고,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까지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가 전례력 안에서 5월을 성모성월로 공식 확정한 것

은 불과 약 100년 전인 1921년이고, 베네딕토 15세 교황이 성모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 선포하면서 5월을 성모성월로 공식 인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성덕을 제대로 본받고 올바른 성모신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모의 겸손함과 하느님에 대한 순명, 그리고 인내와 극기, 절제 등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가르침대로 성모 마리아의 성덕을 제대로 본받고 올바른 성모신심을 키우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서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성모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시편 22,11)

] **μητέρα**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 자궁의 뜻을 가진] **μητέρα**라함] 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



3월 16일 공동체실에서 허광철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4월 17일 성 목요일 미사 1

실장님과 함께

로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 "모태 -] ׀ֶרֶם[레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비로운" -] ׀ֶרֶם[라함]또는 "자비 -] ׀ֶרֶם[라하미]"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 즉] ׀ֶרֶם[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רֶם[라하미]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주로 '자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비로운"의 뜻을 가진] ׀ֶרֶם[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 ׀ֶרֶם[레헴])를 통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의 순간이 따르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난 후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성애의 깊은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존재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태를 통해 한 생명과 연결되어 소중히 다루며, 헌신적이고 깊은 모성애를 느낍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어서가 아닌 본능적으로 하느님께서 저희 어머니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 느끼는 감정과 관계에서 오는 자기 내면의 갈등, 자녀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아주 크게 자리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고 깊습니다.

올바른 성모신심 그리고 이웃사랑

보통 어머니들은 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즉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때부터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기에 자녀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등등.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국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긴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닌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조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욕심, 자랑의 대상이 너무 강해서 아이를 다그치며 함께 보낸 긴 시간을 전혀 즐기지 못했을때, 우리 아이 역시 사랑과 신의, 정직보다 부모의 욕심에만 만족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고, 결국엔 하느님과도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때 우선 비로소 사랑과 신의,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벽한 사랑을 하고 완벽한 사랑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알 수 없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혹에 시달리며 수도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수와 자책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아주 가까이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모 마리아의 성덕을 본받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사랑 그리고 자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선

실장님과 함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그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성모신심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 세상에 사랑을 심으신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우리 모두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부모, 하느님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신앙생활을 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실수와 자책으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어머니가 아닌 사랑과 자비를 마음 한가운데에 두고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평생토록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생활하시며
더없는 겸손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고
한순간도 악마에게 결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친

절과 인내로

저희가 겪는 어려움들을 하느님 앞에 중개해 주셨고

저희 삶의 매듭들을 풀어내는 모범을 보여 주셨으며,

저희가 어머니 곁에 성실히 머무는 한 저희를 평안하게 지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자 저희의 어머니이신 분,

저희 삶의 매듭들을 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어머니께 청하오니

자애로운 마음으로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를 받아 주시어 악마의 공격으로 인한 매듭들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나아가 어머니께서 받으신 은총과 어머니의 중개와 모범을 통하여 저희 또한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하느님과 일치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온갖 매듭들을 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결코 죄악과 잘못을 저지르는 일 없이

언제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안에 두게 해 주시며,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주님께 봉사하게 해 주소서. 아멘.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 ■■■

다만 오늘만이라도

전영민 수산나

친구들과 만나서 실컷 떠들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콘서트나 오페라 관람도 하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이태리말도 배우고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배웠던 영어를 좀더 술술 할 수 있도록 하고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과외공부, 피아노학원,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해서 등등...

시간이 없어서란 이 말은 우리들의 생활 안에 깊이 장악하고 있는듯하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것은 진정한 여가 시간을 누릴 짬을 내지 못한단 말이 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잘 관리해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삶의 기술이라고 하겠다.

요한 23세 교황님의 '다만 오늘 만 이라도' 는 우리 현대인들이 유념해야 할 좋은 지침서가 될것같다

~ 다만 오늘 만 이라도 ~

1. 나는 내 삶 안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선물로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2.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단정한 옷차림과 품위있는 말만을 하고 남을 비판 하는걸 삼가하며 오직 나만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려 하겠다.

3. 내가 창조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고 다른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태어난것을 감사 하겠다.

4. 모든 것이 내 희망 대로 되지 않는다해도 상황에 맞추어 보려고 하겠다.

5. 내게 주어진 시간중에 10분 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데 할애 하겠다 육신이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을 읽는것은 꼭 필요하다.

6. 좋은일 한가지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남에게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7.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한가지를 하겠다 설령 그 일이 극복할 용기가 필요할 지라도 남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하겠다.

8. 상세한 계획을 세우겠다 설혹 그것을 낱날이 지키지 못할 지라도...그리고 두 가지 나쁜 습관은 꼭 고쳐보려 노력 하겠다 '조급함과, 우유부단 함을.



4월 17일 성 목요일 미사 중 세족식 1



4월 17일 성 목요일 미사 중 세족식 2

살아가는 이야기

9. 어떤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해도 마치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 같 세상이 나만을 위해 있는 것 처럼 하느님 은 것 또는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구름 자비의 섭리를 믿겠다. 에 비유하기도 한다.

10. 아름다운 것, 좋은 일에 신뢰하고 당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영어로 선물 황할 일이 생긴다 해도 하느님께서 나를 (present) 이라는 뜻의 합성어란 것이 참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겠다 ~~ 독 으로 그럴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이 일어로 된 것을 필자가 번역한 것임 ~~ 웃과 평화로이 공존하며 사는 삶, 매일이 설렘이요 매일이 새로운 날인 것이다.

티벳트의 한 현인은 서방국가 사람들에게 ~ 나에게 꿈이 있어요 ' 라는 ABBA 가 게 이런 핀잔의 말을 했다고 한다. 사람 부른 노래가 있다 ~ 들은 끊임없이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운다. " 나에게 꿈과 부를 노래가 있어요 산다는 것이 오직 계획 세우기를 위해 있는 것처럼...

조금은 과장되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어떤 어려운 일도 해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요 질에서 멀리간 표현은 아닌듯하다. 물론 실패하여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것 난 천사를 믿어요 내가 보는 모든 만물 은 바람직한 일인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의 선행도 믿고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만 급급 하다 보면 오 나의 때가 내게 맞추어 다가올 것을 알 다. 이미 살고 있는 현실을 붙잡으려고 면 하는 대신 미래를 위하여 단단히 무장? 난 개울을 건너갈 거예요" 을 하며 살고 있는 듯 하다.

위의 교황님의 '오늘 만이라도'는 누구 이 노래를 들으면, 짓눌렸던 마음의 빗장 이 풀리는 듯하고 하느님의 자비로운 섭 나 꼭 한번쯤 숙고해 볼 만한 사항들인 것 리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드 같다. 지금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삶, 오늘 는 것은 나만 그럴까? 🙏

을 충실히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이다. 내일은 또 다시 다가오는 오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은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 졌 고 현재의 연속인 것이다. 후진도 반복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은 한번 사라지면



4월 17일 성 목요일 미사 중 영성체 의식



4월 18일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살아가는 이야기

화장

아침기도 마친후 화장을 한다
크림을 바르고 화운데이션을 톡톡 거린다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진 피부가 감쪽같이 예뻐 얼굴로 변신을 한다
거울속에 비쳐진 우아한 나를 보면서
언뜻, 내 안에 나의 모습이 좋은 생각으로 화장을 한다면
겸손한 태도로 부드러운 마음 가짐이 될 수 있을텐데
화장하다 터득한 자기성찰 이라고 할까

재의 수요일, 머리에 재를 뿌리고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 예시
은수저를 재로 닦으면 반짝반짝 새것처럼 된다는데
원컨데, 내 영혼도 그 처럼 빛나게 닦아주렴
머리에 뿌려진 재를 받고 터득한 참회의 지혜랄까

내가 즐겨입는 하얀색 블라우스
빨래통에 처박혀져 거무죽죽 해진 걸
비누가득 묻혀서 물속에 잠겨봤다 두어시간 기다려 다시 빨아보니
원래의 새하얀 모습으로 나를 반기는구나
오호, 타빈즈 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모습이 떠오른다
내 안의 불순한 생각 비누칠을 뽁뽁해서 깨끗해 질 수 있다면
빨래하다 터득한 양심의 고백 이랄까



5월 1일 운동회 1



5월 1일 운동회 2

세레 소감문

서현덕

발렌티노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현덕 발렌티노 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발렌티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당을 찾게 된 계기는 친구를 따라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생일이 2월 14일이라는 이유로 '발렌티노'라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당에 처음 나간 날, 허 신부님께서 "넌 발렌티노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 허 신부님은 물론 공동체 분들도 저를 '미리 발렌티노'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세례자 교육을 받을 때는, 허 신부님께서 제 본명을 잊어버리시고 세례받기 전부터 저를 '미리 발렌티노'라고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 시간에는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했지만, 허 신부님께서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덕분에 세례자 교육이 정말 재미있고 매번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받는 날은 더욱 뜻깊었습니다. 오전에는 성 발렌티노 성당에서 연주를 하고, 오후에는 세례를 받으며 진짜 발렌티노라는 이름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우버 기사님의 이름마저 '발렌티노'였던 것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만큼, 이 소중한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충실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배우고 성장하는 발렌티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월 20일 부활 미사 중 세례식 1



서현덕 발렌티노와 임석균 사도요한 형제님

세례 소감문

임효민

마리스텔라

저는 작년 11월부터 미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 가서 처음 미사를 드렸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주일 미사를 다니면서 조금 낯설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세례교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새로운 점들과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가면서 제 곁에 하느님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미사에 성실히 다니고, 주위에 사랑을 베풀며, 힘들 때에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까지 교리 수업을 해 주신 신부님과 실장님,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4월 20일 부활 미사 중 세례식 2



임효민 마리스텔라와 가족들



임효민 마리스텔라와 김지윤 크리스티나 자매님

세례 소감문

최민정

마리

2025 회년 어느 봄날 당신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깊고 넓은 당신의 은총과 세례명을 빌려주신 성인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내 잘못을 성찰하고 타인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허하고 허한 이 마음 구석 구석을 등대와 같은 빛으로 밝혀 주소서.
연약하고 미천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소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성체 모심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소서.
두손 모아 무릎 꿇고 당신을 찬미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



최민정 마리 자매님 세례식



최민정 마리 자매님

세례 소감문

허승정

루카

저는 가톨릭 신자이셨던 외할머니와 함께 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외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항상 마리아 상과 십자가, 촛불이 놓여 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부모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와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성당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유학을 위해 뮌헨에 오게 되었고, 친구의 소개로 뮌헨 한인 성당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미사에 참석했을 때, 저를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예비자 교리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허 신부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셔서 즐겁게 배우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빛을 통해 양자 세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로서, '빛'이라는 뜻을 가진 루카세례명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순간은 제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며 축복해주시는 허 신부님, 실장님, 그리고 모든 본당 형제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4월 20일 부활 미사 및 세례식 3



허승정 루카와 김충년 미카엘 형제님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서현 로렌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박석정 가브리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